

누가 로또를 하는가?: 복권유형에 따른 복권구매행동 규정요인의 차이

김정은 · 이누미야 요시유키*

명지대학교 여가문화연구센터

본 연구는 복권구매행동에 대해 심리학적인 설명을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즉,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와 개인의 성격, 그리고 복권에 대한 태도라는 측면에서 복권구매행동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일반성인 575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본 연구를 통해 복권구매자는 비구매자에 비해 자극추구성향이 높고, 내적통제경향이 약하지만 생활만족도에는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복권구매자는 비구매자에 비해 복권에 대한 감정적 태도가 긍정적이며, 복권의 긍정적 기능에 대한 신념과 복권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이 강하고, 복권구매를 부정적으로 보는 내면화된 타자의 시각인 주관적 규범이 약하며, 복권구매행동에 대한 높은 통제력(주관적인 경제적 여유)을 가지고 있었으나 복권의 부정적 기능에 대한 신념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복권구매행동을 예측하는 이러한 요인들의 중요성은 구매복권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즉, 추첨식 복권은 주로 생활만족도가 낮고, 복권의 긍정적 기능에 대한 신념이 강하며 용돈을 복권구입에 쓸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복권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즉석식 복권은 주로 복권에 대한 감정적 태도가 긍정적이며 복권은 복 있는 사람에게 된다는 신념과 사람은 때로 복권 당첨을 미리 알 수 있는 꿈을 꾸는 경우가 있다는 복권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복권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로또복권은 주로 생활만족도가 높고, 자극추구성향도 높으면서 복권에 대한 감정적 태도가 긍정적이며 복권의 긍정적 기능에 대한 신념이 강하고 복권 당첨은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된다는 신념과 복권은 복 있는 사람에게 된다는 비합리적 신념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복권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제어 : 로또복권, 복권구매행동, 복권에 대한 태도, 생활만족도, 자극추구성향, 통제소재

경마, 경륜, 카지노, 복권 등 게임산업의 총매출액은 1995년에 2조 6천억원 규모를 기록한 이후 1998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다. 1995년 이후 2000년까지 국내 레저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이 6.7%에 불과한 데 반해, 게임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무려 18%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레저시장에서 게

임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1995년의 25% 수준에서 2000년의 41% 수준으로 높아졌다(한국산업개발연구원, 2002). 추첨식 복권, 즉석식 복권 등으로 구성되는 국내 복권시장은 1996년 이후 경기 침체와 복권 상호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해 점차 매출이 감소하였다가 1999년 이후 경기가 회복되고 추첨식 복권이 당첨금 고액화 정책을

* 교신저자 : 이누미야 요시유키(120-728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50-3 명지대학교 여가문화연구센터, inumiya@hanmail.net)

펼치면서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건설교통부, 2001). 또한 2002년 12월에 등장한 로또(Lotto : 온라인 연합복권)에 힘입어 국내 복권시장은 당분간 계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어 있다(한국산업개발연구원, 2002).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최근 복권관련 문제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복권구매자와 복권구매행동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떤 성격의 소유자가 자신의 삶에 대해 어떻게 느낄 때 복권을 구매하게 되는지, 또한 그러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복권에 대한 태도는 어떤 것인지를 밝힘으로써 복권구매행동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를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사람들의 복권구매행동을 규정하는 심리적인 요인은 무엇인가? 먼저 복권구매자들이 보고한 복권구매 이유를 고려할 때 자신의 삶에 대한 느낌이 복권구매행동을 유발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사람들은 자신의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 불만을 느낄 때 그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복권에 희망을 걸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복권구매자들의 복권구매 이유에 관하여,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거액의 당첨금을 기대하고' 복권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심심해서/재미로' 복권을 구입하는 경우가 적어진다. 또한 중졸 이하의 교육수준 및 저소득층에서 복권 구입비용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한국산업개발연구원, 2002). 이러한 결과는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전반적으로 생활만족도가 낮기 때문에 그것을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복권구매행동이 선택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복권구매행동은 이 이외에도 두 가지 측면에서 규정될 수 있다. 첫째는 개인의 성향이나 기질의 특성이며(Walker, 1992), 둘째는 사회적 홍보나 선전에 의해 조성된 분위기이다(한국산업개발연구원, 2002). 개인의 성격과 복권구매행동에 관한 연구는 몇 편의 탐색적 연구를 제외하면 거의 없는 실정이다. Walker(1992)에 의하면 복권 중독자는 자기 통제력이 약하며, 외향적인 성향을 지니며, 외부 의존적인 성향을 지니며, 정서적으로 취약한 성향을 지니고 있다. 또한 Cook, McHenry 및 Leigh(1998)에 따르면 복권을 많이 구입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통제력이 약하고, 지적효율성이 떨어지며, 의존

적이며, 책임감이 약하다(한국산업개발연구원, 2002에서 재인용). 한편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복권을 구매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복권을 구매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 새로운 경험추구 성향이 강하고, 외적 통제 경향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명지대학교 여가문화연구소, 2003). 위와 같은 연구들은 복권 종류의 차이나 모집단의 차이 또는 아주 낮은 설명력(Cook et al., 1998) 때문에 한국에서 일반성인의 복권구매행동에 그대로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본 연구에서는 복권구매행동을 규정할 성격변인으로서 자극추구성향과 통제소재에 주목하였다. 복권구매행동은 게임에 이기기 위한 기술적 요소의 개입 가능성이 적고, 게임의 구체적 대상을 찾기가 어렵고, 게임에 대해 지니고 있어야 하는 지식도 별로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카지노나 경마/경륜과 같은 기타 도박과는 확연히 구분된다(Walker, 1992).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권구매행동은 확실성(돈)을 담보로 하여 불확실성(그 결과로서의 당첨금)에 내기를 건다는 점에서 '위험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으며, 정도가 약한 도박이라고 볼 수도 있다. 도박과 같은 위험한 행위를 추구하는 소인으로서 가장 많이 논의된 성격 특성이 자극추구 성향, 새로운 경험추구 성향, 위험감수 성향이다(이홍표, 2003).

이러한 개념들은 내용상 상당히 중복되는 개념들이다. 예를 들어 자극추구 성향은 신기하고 강한 경험을 추구하는 성향(Arnett, 1994), 또는 다양하고 새로우며 복잡한 자극을 회피하고, 그러한 자극을 얻기 위해 신체적, 사회적 위협까지도 기꺼이 감수하려는 특질로 정의되며(Zuckerman, 1997), 새로운 경험추구 성향은 새로운 자극이나 잠재적 보상에 대한 단서들에 반응하여 강렬한 기분의 들뜸이나 흥분을 향한 유전적 경향성으로, 단조로움의 회피뿐만 아니라 잠재적 보상을 추구하는 빈번한 탐색적 활동을 유도하는 성향으로 정의된다(Cloninger, 1987). 위험감수 성향은 위험한 상황을 피하거나 접근하려는 일반적인 의지 혹은 동기적 특성으로 정의된다(Knowles, Cutter, Walsh, & Casey, 1973). 또한 Arnett(1992)는 위험감수 경향의 다요인 모델에서 개인이 나타내는 위험감수 경향의 수준을 기질적 경향과 문화로 인해 부가된 제한의 두 가지 요인으로 구별

하고 기질적 경향 중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자극 추구(sensation-seeking) 경향을 상징하였다. 이상을 요약하면 성격 차원 중에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새로운 경험을 통해 강한 자극을 얻고자하는 기질적인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단의 특징(위험하거나 새롭다는)이 아니라 최종 목적(강한 자극)에 초점을 맞추어 자극추구 성향이라는 명칭을 채용하고, 개인의 기질적인 성격특성으로서의 자극추구 성향과 복권구매행동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한다.

다음 과제는 인지적인 성격특성으로서 통제소재와 복권구매행동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세계에 대해 어떠한 신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행동이 매우 달라질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Rotter(1966)는 “행동은 목표에 대한 가치와 기대의 함수”라는 가정 하에 행동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서의 내외통제소재(Internal-External Locus of Control)라는 개념을 제창했다. 내외통제소재란 개인의 행동과 행동의 결과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인지양식으로서 행동의 결과는 개인 행동에 수반되고 따라서 통제할 수 있다는 신념인 내적 통제 경향과, 행동의 결과는 개인 행동에 수반되지 않으며, 따라서 통제할 수 없다는 신념인 외적 통제 경향을 양극으로 하는 일차원적 변인이다. 각 개인은 개인차에 따라 이러한 일차원적 연속체상 어딘가에 위치하며 내적 통제경향이 강한 사람(내적 통제자, Internals)과 외적 통제경향이 강한 사람(외적 통제자, Externals)으로 분류된다. 내적 통제자는 일의 성패는 개인의 능력(ability), 노력(effort), 기능(skill) 같은 내적 요인에 따라 통제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 외적 통제자는 일의 성패는 운이나 우연, 힘이 있는 타인(powerful others) 같은 외적 요인에 따라 통제된다고 생각하거나 상황 요인이 너무 복잡해서 예측 불가능하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복권당첨은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운이나 우연 같은 외적 요인에 따라 좌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요행을 기대하고 복권구매행동을 하게 되는 배경에는 외적통제의 신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복권을 둘러싼 사회적 분위기는 개인마다 다르게 영향을 줄 것이며, 사회적 홍보나 선전의 내용은 개인마다 다르게 내면화될 것이다. 따라서 개인 수준에서는

형성된 복권에 대한 태도에는 개인차가 있을 것이며, 그러한 복권에 대한 태도는 복권구매행동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과학에 있어서는 행동을 예측하기 위한 대표적인 이론에 합리적 행위의 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 TRA)이 있다. Fishbein과 Ajzen(1975)에 의해 제창된 이 이론은 인간은 합리적인 정보처리를 수행하고 그것에 의거하여 행동을 일으킨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二宮, 1999에서 재인용). 이에 따르면 행동(behavior)은 행동의도(intention)에 의해 야기되며, 그 행동의도는 행동에 대한 감정적 태도(affective attitude)와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의 두 가지 요인에 의해 규정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이론적 틀에 의거해서 제시된 행동의 예측식은 행동예측 연구의 유효한 모델로서 활용되고 있다. Ajzen(1987)은 또 하나의 예측요인으로 행동통제의 지각(perceived behavioral control)을 투입함으로써 TRA 모델을 확장하여 계획된 행동의 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 TPB)을 제창하였다. TPB 모델은 에어로빅, 해수욕, 조깅, 등산, 축구관전, 축구복권구매 등의 여가활동을 예측하는 데 활용되어 있다(二宮, 1999; Ajzen & Driver, 1991; Gatch & Kendzierski, 1990; Godin, 1993).

본 연구에서는 복권구매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TPB 모델을 참고로 하여, 복권구매행동을 준거변인으로 설정하고 복권에 대한 태도(감정적 태도, 복권에 관한 신념, 주관적 규범, 및 행동통제의 지각)를 예언변인으로 채용하였다.

복권에 대한 감정적 태도는 복권에 대한 태도의 정서적 내지 평가적 측면을 의미한다. 즉, 복권에 대한 감정적 태도는 복권에 대한 호의적-비호의적 반응, 또는 긍정적-부정적 평가를 양극으로 하는 차원이다. 복권이 매력적이고, 밝고, 재미있고, 건전하다고 정서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사람은 복권이 매력없고, 어둡고, 지루하고, 불건전하다고 정서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사람보다 복권을 구매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하면 복권에 대한 감정적 태도는 복권구매행동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

복권에 대한 태도에는 인지적 측면도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복권에 대한 사회적 표상(social representation)을 이해하는 것이 복권구매행동을 이해하

는 데 앞서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복권은 사람들의 요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해친다는 견해가 있는데 실제로 일반 사람들이 이 견해가 시사하는 복권구매행동과 근로의욕의 인과관계를 어느 정도 지지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당첨은 전적으로 우연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도 하나의 신념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를 부분적으로 부정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당첨자들의 수기에 나타나는 특이한 꿈을 꾸 경험과 복권당첨과의 관계에 대한 신념과 같은 민속적인 믿음을 개개인이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는지는 복권구매행동을 설명 또는 예측하는 변인일 수 있다. 복권과 관련된 이러한 일반인 심리학(folk psychology)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권에 대한 태도의 인지적 측면을 구성한다. 본 연구에서는 복권과 관련된 신념을 복권의 긍정적인 심리-사회적 기능에 대한 신념, 부정적인 심리-사회적 기능에 대한 신념, 및 복권당첨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의 세 가지 부분으로 구분하여 복권구매행동에 대한 영향을 알아보려고 한다.

주관적 규범은 중요한 타자(significant others)로부터의 기대에 의해 형성되는 행동의 기준이다. 앞에서 살펴본 복권에 대한 감정적 태도와 복권에 관한 신념이 스스로가 복권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정서적, 인지적 측면에 관한 것이라면, 주관적 규범은 자신을 둘러싼 주변 사람들이 복권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이며 복권구매행동에 관한 내면화된 사회적 규범이다. 중요한 타자로서는 가족이나 친구를 상정할 수 있는데, 만약 그러한 주변 사람들이 복권구매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갖고 있거나 부정적 반응을 나타낼 거라고 예상한다면 본인의 복권구매행동을 억제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Ajzen(1987)이 자신의 행동예측모델을 수정하기 위해 추가로 투입한 예측요인이 행동통제의 지각이다. 행동통제의 지각은 어떤 행동을 성취시키는 실행력에 관한 자각을 의미한다. TRA 모델에 행동통제의 지각 변인이 투입되어 확장된 계획된 행동의 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 TPB)은 많은 경우 TRA 모델보다 예측력이 향상되었다(二宮, 1999; Ajzen & Driver, 1991; Gatch & Kendzierski, 1990; Godin, 1993). 복권구매행동에 있어서도 아무리 긍정적인 감정적 태도나 심리-사회적

기능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도 구매능력이 없으면 복권을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을 것이다. 즉, 복권구매와 관련된 경제적 능력을 반영하는 행동통제의 지각 또한 복권구매행동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 될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한국의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한 복권구매행동에 관한 실태조사는 이루어졌으나(한국산업개발연구원, 2002) 그들의 복권구매행동을 심리학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는 없었다. 외국의 연구에서도 복권구매행동과 관련되는 성격변인과의 상관관계를 탐색한 연구(Cook, McHenry & Leigh, 1998; Walker, 1992)나 복권에 대한 태도만으로 복권구매행동을 설명하려고 시도한 연구(二宮, 1999)는 있었으나 충분한 설명력이 없었고 복권구매행동을 사회 및 성격심리학적 변인으로 종합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떤 성격의 소유자가 자신의 삶에 대해 어떻게 느낄 때 복권을 구매하게 되는지, 또한 그러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복권에 대한 태도는 어떤 것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즉, 개인의 통제소재, 자극추구성향, 생활만족도 및 복권에 대한 태도(감정적 태도, 복권에 관한 신념, 주관적 규범 및 행동통제의 지각)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복권구매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모델을 탐색하고자 한다.

그런데 각 복권종류마다 각기 다른 상품특성을 갖고 있다. 즉, 기존의 추첨식 복권(주택복권, 플러스플러스복권, 슈퍼더블복권 등)은 판매단가가 약간 비싸고(1000원에서 2000원) 당첨확률이 낮은 대신에 최고 당첨금액이 높으며 추첨 일까지 기다리는 재미를 제공한다. 즉석식 복권(주택레저, 슈퍼더블팡팡복권, 녹색복권 등)은 판매단가가 약간 싸고(500원에서 1000원) 최고 당첨금액이 낮은 대신에 당첨확률이 높으며 즉석에서 당첨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로또복권은 구매자가 원하는 숫자를 임의로 선택가능하며, 판매단가가 비싸고(2000원) 당첨확률이 가장 낮은 대신에 최고 당첨금액이 기존의 추첨식 복권보다 높으며 추첨 일까지 기다리는 재미를 제공한다. 따라서 복권구매행동도 선호하는 복권유형에 따라 세부적인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구매복권의 유형(추첨식 복권, 즉석식 복권, 로또복권)에 따라 위의 복권구매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모델의 적용가능성에 차이가 있는지, 또는 상이한 모델

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도 탐색할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가설과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가설 1.** 복권구매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복권구매경험이 없는 사람들보다 생활만족도 수준이 낮을 것이다.
- 가설 2.** 복권구매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복권구매경험이 없는 사람들보다 자극추구성향이 강할 것이다.
- 가설 3.** 복권구매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복권구매경험이 없는 사람들보다 내적통제경향이 약할 것이다.
- 가설 4.** 복권구매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복권구매경험이 없는 사람들보다 복권에 대한 감정적 태도가 긍정적일 것이다.
- 가설 5.** 복권구매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복권구매경험이 없는 사람들보다 복권의 긍정적 기능에 대한 신념이 강할 것이다.
- 가설 6.** 복권구매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복권구매경험이 없는 사람들보다 복권의 부정적 기능에 대한 신념이 약할 것이다.
- 가설 7.** 복권구매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복권구매경험이 없는 사람들보다 복권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이 강할 것이다.
- 가설 8.** 복권구매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복권구매경험이 없는 사람들보다 복권구매를 부정적으로 보는 내면화된 타자의 시각인 주관적 규범이 약할 것이다.
- 가설 9.** 복권구매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복권구매경험이 없는 사람들보다 복권구매에 관한 행동통제의 지각(주관적인 경제적 여유)이 높을 것이다.

연구문제 1. 구매복권의 유형에 따라 위와 같은 복권구매행동의 규정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다.

방 법

조사대상

본 연구에는 서울시와 전주시에 거주하는 일반성인 575명이 참여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남자 385명, 여자 190명이었으며, 20대 244명, 30대 156명, 40대 106명, 50대 이상 42명이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2003년 1월 21일에서 29일 사이, 즉 로또복권 8, 9회차 판매기

간에 행해졌으며, 구체적인 조사 장소는 극장, 백화점, 복권방, 대학교, 편의점 등이었다.

측정도구

생활만족도 Diener, Emons, Larsen 및 Griffin(1985)이 개발한 생활만족도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를 사용하였으며, 7점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7점-매우 그렇다)로 평가하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2이었다.

자극추구성향 자극추구성향을 측정하는 12문항의 질문지를 구성하여 7점 척도로 평가하게 하였다. 여기서 사용된 문항들은 이홍표(2003)가 번안한 Knowles 등(1973)의 위험감수 척도(RTQ : Risk-Taking Questionnaire)와 Cloninger, Przybek, Svrakic 그리고 Wetzel(1994)이 개발한 기질 및 성격 검사(TCI :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에 의거하여 신행우(1998)가 제작한 단축형 3차원 성격검사(TPQ : Tridimensional Personality Questionnaire)의 새로운 경험 추구 차원에 속한 문항 중에서 조사대상자들의 부담을 고려하여 일부만을 선정한 것이다(부록 참조).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69이었다.

내적통제경향 내적통제경향을 측정하기 위해 5문항의 질문지를 구성하여 7점 척도로 평가하게 하였다. 이는 윤정륜(1982)이 번안한 Rotter(1966)의 Internal-External Control Scale 중에서 조사대상자들의 부담을 고려하여 일부만을 선정한 것이다(부록 참조).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61이었다.

복권에 관한 감정적 태도 복권에 관한 감정적 태도는 호의적 평가와 비호의적 평가를 양극으로 하는 9쌍의 형용사(부록 참조)를 5점 척도(예 : 1점-매우 매력있는, 5점-매우 매력없는)로 측정하였다(부록 참조).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7이었다.

복권에 관한 신념 복권에 관한 신념은 복권의 긍정적 기능에 대한 신념(3문항)과 복권의 부정적 기능에 대한 신념(2문항) 및 복권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3문항)을 구별하여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부록 참조).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각각 .60, .63, .28이었다. 그래서 내적 합치도가 낮은 것으로 드러난 복권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은 각 문항별로 따로 분석하

였다.

주관적 규범 주관적 규범은 중요한 타자(significant others)로부터의 기대에 의해 형성되는 행동의 기준이다. 여기서는 중요한 타자로서 가족과 친구를 상정하여, '내 가족들은 내가 복권을 구입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와 '내 친구들은 내가 복권을 구입하는 것을 말할 것이다'의 2문항의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78이었다.

행동통제의 지각 행동통제의 지각은 어떤 행동을 성취시키는 실행력에 관한 자각을 의미한다. 복권구매행동에 있어서 행동통제의 지각은 복권구매와 관련된 경제적 능력에 대한 지각일 것이라는 가정 하에 '나는 용돈을 복권구입에 쓸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다'는 문항을 작성하여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복권구매행동 복권구매빈도와 선호복권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각각 1문항의 질문지를 구성하여 측정하였다(부록 참조).

결과 및 해석

복권구매행동의 예측 모델

복권구매행동의 예측요인

복권구매행동을 규정하는 요인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복권구매경험 유무에 따라 생활만족도, 자극추구성향, 내

적통제경향, 복권에 대한 감정적 태도(affective attitude), 복권에 관한 신념(belief),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 그리고 행동통제의 지각에 차이가 나는지 알아본 결과를 표 1에 제시했다. 또한 선호하는 복권유형에 따른 각 변인의 평균 차이를 검토한 결과도 표 2에 제시하였다. 복권의 구매경험 유무를 최근 1년 동안 복권을 한번도 구입한 적이 없는 사람(135명)과 한번 이상 복권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사람(440명)으로 구분하여 비교해 본 결과,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복권구매경험 있는 집단과 복권구매경험 없는 집단은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선호하는 복권유형에 따라 집단을 분류하여 좀더 세부적으로 검토하였다.

생활만족도 : 복권구매경험이 있는 집단($M=4.21$)과 복권구매경험이 없는 집단($M=4.16$)간에는 생활만족도 수준에 있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573)=.48, ns$. 따라서 가설 1을 지지되지 않았다. 그러나 복권의 선호유형에 따라 생활만족도 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F(3, 563)=23.61, p<.001$. 각 유형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Scheffé 사후비교를 한 결과, 추첨식 복권을 선호하는 사람들($M=3.62$)은 복권을 구매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M=4.16$)에 비해 생활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로또복권을 선호하는 사람들($M=4.67$)은 복권 구매 경험이 없는 집단($M=4.16$)이나 즉석식 복권($M=3.90$) 내지 추첨식 복권을 선호하는 사람들($M=3.62$)보다 생활만족도

표 1. 복권구매경험 유무에 따른 연구변인들의 평균 비교

복권구매행동의 예측요인	복권구매 유경험집단복권구매 무경험집단		t
	(N=440)	(N=135)	
생활만족도	4.21	4.16	.48
자극추구성향	4.00	3.72	3.77***
내적통제경향	4.50	4.78	-3.18***
감정적 태도	3.29	2.61	9.56***
긍정적 기능에 대한 신념	4.84	3.87	8.84***
부정적 기능에 대한 신념	4.92	5.05	-1.05
비합리적 신념			
복권 당첨은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된다.	3.64	3.26	2.30*
솔직히 복권은 복 있는 사람에게 된다.	4.42	3.63	5.21***
사람은 때로 복권 당첨을 미리 알 수 있는 꿈을 꾸는 경우가 있다.	4.94	4.40	3.98***
주관적 규범	3.88	4.56	-4.40***
행동통제의 지각	4.28	3.77	3.29**

* $p<.05$, ** $p<.01$, *** $p<.001$

표 2. 선호복권 유형에 따른 연구변인들의 평균 비교

	복권구매 무경험자 집단	추첨식 복권 선호집단	즉석식 복권 선호집단	로또복권 선호집단	평균(표준편차)	F
사례수	135	61	168	203	567	(3, 563)
생활만족도	4.16 _b	3.62 _a	3.90 _{ab}	4.67 _c	4.19(1.12)	23.61***
자극추구성향	3.72 _a	3.96 _{bc}	3.81 _{ab}	4.17 _c	3.93(.71)	14.11***
내적통제경향	4.78 _b	4.32 _a	4.46 _{ab}	4.60 _{ab}	4.57(.89)	5.08**
감정적 태도	2.61 _a	3.09 _b	3.06 _b	3.55 _c	3.13(.78)	50.39***
긍정적 기능에 대한 신념	3.87 _a	4.63 _b	4.53 _b	5.19 _c	4.62(1.18)	40.72***
부정적 기능에 대한 신념	5.05 _b	4.56 _a	4.90 _{ab}	5.06 _b	4.95(1.25)	2.89*
비합리적 신념						
복권 당첨은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된다.	3.26 _a	3.25 _a	3.18 _a	4.13 _b	3.55(1.66)	13.87***
솔직히 복권은 복 있는 사람에게 된다.	3.63 _a	4.13 _{ab}	4.58 _b	4.38 _b	4.24(1.58)	10.40***
사람은 때로 복권 당첨을 미리 알 수 있는 꿈을 꾸는 경우가 있다.	4.40 _a	4.92 _{bc}	5.22 _c	4.71 _{ab}	4.82(1.39)	9.62***
주관적 규범	4.56 _c	3.86 _{ab}	4.27 _{bc}	3.57 _a	4.04(1.57)	12.89***
행동통제의 지각	3.77 _a	4.57 _b	3.88 _a	4.53 _b	4.16(1.60)	9.91***

* $p < .05$, ** $p < .01$, *** $p < .001$, _{a,b,c} Scheffé 사후비교 결과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극추구성향: 복권구매경험이 있는 집단($M=4.00$)은 복권구매경험이 없는 집단($M=3.72$)보다 자극추구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t(573)=3.77, p < .001$. 가설 2는 지지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추첨식 복권($M=3.96$)과 로또복권을 선호하는 사람들($M=4.17$)에서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다, $F(3, 563)=14.11, p < .001$ (Scheffé 사후비교의 결과).

내적통제경향: 복권구매경험이 있는 집단($M=4.50$)은 복권구매경험이 없는 집단($M=4.78$)보다 내적통제경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t(573)=-3.18, p < .001$. 가설 3은 지지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추첨식 복권($M=4.32$)에서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다, $F(3, 563)=5.08, p < .05$ (Scheffé 사후비교의 결과). 단, 복권구매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복권구매경험이 없는 사람들보다 내적통제경향이 약하긴 했으나 추첨식 복권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내적통제경향의 평균이 4점 이상으로 나타났으므로, 일의 성패가 개인의 능력(ability), 노력(effort), 기능(skill) 같은 내적 요인에 따라 통제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복권을 구입하지 않고, 일의 성패가 운이나 우연, 힘이 있는 타인(powerful others) 같은 외적 요인에 따라 통제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복권을 구입한다는 설명은 타당한 설명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복권에 관한 감정적 태도: 복권구매경험이 있는 집단($M=3.29$)은 복권구매경험이 없는 집단($M=2.61$)보다 복권에 대한 감정적 태도가 긍정적이었다, $t(573)=9.56, p < .001$. 가설 4는 지지되었다. 즉 최근 1년 동안 한번 이상 복권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복권과 관련하여 훨씬 긍정적인 감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각 집단의 평균값을 고려할 때, 복권구매경험 있는 집단에서는 반 이상의 사람들이 복권이 매력있고, 밝고, 재미있고, 가치 있고, 꿈이 있고, 바람직하고, 즐겁고, 희망적이고, 건전하다고 정서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향은 추첨식 복권($M=3.09$)이나 즉석식 복권을 선호하는 사람들($M=3.06$)보다 로또복권을 선호하는 사람들($M=3.55$)에서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다, $F(3, 563)=50.39, p < .001$ (Scheffé 사후비교의 결과). 그러나 복권구매경험 없는 집단에서는 그러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들은 소수이고 대다수의 경우는 복권이 매력없고, 어둡고, 지루하고, 쓸모없고, 절망적이고, 꺼림칙하고, 비참하고, 비판적이고, 불건전하다고 정서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복권에 대한 이러한 감정적 태도는 복권구매행동을 규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복권에 관한 신념: ① 복권의 긍정적인 기능에 대한

신념 복권구매경험이 있는 집단($M=4.84$)은 복권구매경험이 없는 집단($M=3.87$)보다 복권의 긍정적 기능에 대한 신념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t(573)=8.84, p<.001$. 가설 5는 지지되었다. 즉, 복권은 오락적 재미를 제공하고, $t(573)=6.73, p<.001$,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며, $t(573)=6.84, p<.001$, 세금을 걷는 대신 공익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고 하는, $t(573)=5.94, p<.001$, 복권의 긍정적인 심리-사회적 기능에 대한 신념이 강한 사람일수록 복권을 구입할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추첨식 복권($M=4.63$)이나 즉석식 복권을 선호하는 사람들($M=4.53$)보다 로또복권을 선호하는 사람들($M=5.19$)에서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다, $F(3, 563)=40.72, p<.001$ (Scheffé 사후비교의 결과).

② **복권의 부정적인 기능에 대한 신념** 복권구매경험이 있는 집단($M=4.92$)과 복권구매경험이 없는 집단($M=5.05$) 간에는 복권의 부정적 기능에 대한 신념에 있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573)=-1.05, ns$. 가설 6은 지지되었다. 즉, 복권구매경험의 유무와 상관없이 과반수의 사람들이 복권은 사회에 사해심을 조장하고, 한탕주의를 만연하게 하고, 사람들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해친다고 믿고 있었다. 따라서 복권구매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복권의 부정적 기능에 대해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복권을 사본 적이 없는 사람들만큼 복권의 부정적 기능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단, 추첨식 복권을 선호하는 사람들($M=4.56$)에 한해서는 복권의 부정적 기능에 대해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3, 563)=2.89, p<.05$ (Scheffé 사후비교의 결과).

③ **복권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 복권구매경험이 있는 집단은 복권구매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전반적으로 복권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복권구매경험 있는 집단($M=3.64$)이나 복권구매경험 없는 집단($M=3.26$)이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복권 당첨은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된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복권구매경험 있는 집단에서는 복권구매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이러한 생각을 부정하는 정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t(573)=2.30, p<.05$. 이러한 경향은 로또 복권을 선호하는 사람들($M=4.13$)에 의해 나타난 것이었다, $F(3, 563)=13.87, p<.001$ (Scheffé 사후비교의

결과). 또한 복권구매경험 있는 집단($M=4.42$)에서는 복권구매경험이 없는 집단($M=3.63$)에서보다 복권 당첨이 전적으로 우연에 의해 확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복권은 복 있는 사람에게 된다’고 하는 복권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t(573)=5.21, p<.001$. 이러한 경향은 주로 즉석식 복권($M=4.58$)과 로또 복권을 선호하는 사람들($M=4.38$)에 의해 나타난 것이었다, $F(3, 563)=10.40, p<.001$ (Scheffé 사후비교의 결과). 그리고 ‘사람은 때로 복권 당첨을 미리 알 수 있는 꿈을 꾸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복권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t(573)=3.98, p<.001$. 이러한 경향은 주로 추첨식 복권($M=4.92$)과 즉석식 복권을 선호하는 사람들($M=5.22$)에 의해 나타난 것이었다, $F(3, 563)=9.62, p<.001$ (Scheffé 사후비교의 결과). 따라서 가설 7은 지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선호하는 복권의 종류에 따라 복권구매행동의 기저에 자리 잡고 있는 비합리적 신념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을 시사한다. 재빨리 로또구매에 나서고 그것을 선호하게 된 사람들은 비합리적 신념 가운데서도 긍정적 환상의 일종인 세상의 공정성에 대한 신념, 즉 이 세상은 보상을 받을 만한 사람이 보상을 받고, 벌을 받을 만한 사람이 벌을 받는 공정한 세계라는 신념(belief in a just world : Lerner, 1980)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시하며, 이러한 세상의 공정성에 대한 신념은 자신의 통제감의 환상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Lerner, 1980). 이와 대조적으로 로또복권 발매개시 이후에도 여전히 추첨식 복권 또는 즉석식 복권을 선호하고 있는 사람들은 비합리적 신념 가운데서도 일종의 운명론적 신념과 초자연적 지각에 대한 신념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시하며, 이러한 신념은 외적통제의 신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주관적 규범 : 복권구매경험이 있는 집단($M=3.88$)은 복권구매경험이 없는 집단($M=4.56$)보다 복권구매를 부정적으로 보는 내면화된 타자의 시각인 주관적 규범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t(573)=-4.40, p<.001$. 가설 8은 지지되었다. 즉, 가족이나 친구가 중요한 타자(significant others)로서 본인의 복권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추첨식 복권($M=3.86$)과 로또복권을

선호하는 사람들($M=3.57$)에서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다, $F(3, 563)=12.89, p<.001$ (Scheffé 사후비교의 결과).

일본의 축구복권에 관한 연구에서는 주관적 규범은 축구복권구매의도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二宮, 1999),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복권구매행동에 대한 주관적 규범의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차이에 대한 해석으로서 다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하나는 정보수집 및 분석 능력을 어느 정도 발휘할 수 있다는 점과 축구경기와의 연계성이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복권보다 자아 관여도(ego involvement)가 높은 경우에는 가족이나 친구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지만, 단순한 추첨식 또는 즉석식의 기존복권의 경우는 자아 관여도가 낮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의 영향을 비교적 강하게 받는 것일 수 있다는 해석이다. 또 다른 해석으로서 개인주의적 풍조가 강한 일본 청년들과 대조적으로 가족주의적 내지 관계지향적 경향이 강한 한국인들(김동직, 한성열, 1998)의 심리적 특징의 차이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행동통제의 지각: 복권구매경험이 있는 집단($M=4.28$)은 복권구매경험이 없는 집단($M=3.77$)보다 복권구매행동에 대한 높은 통제력을 가지고 있었다, $t(573)=3.29, p<.01$. 가설 9는 지지되었다. 이것은 주관적인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일수록 복권을 구매하게 되는 경

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추첨식 복권($M=4.57$)과 로또복권을 선호하는 사람들($M=4.53$)에서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다, $F(3, 563)=9.91, p<.001$ (Scheffé 사후비교의 결과). 즉석식 복권은 단가가 다른 복권보다 싸기 때문에 구매 비용이 한정되는 데 비해 단가가 비싼 로또복권이나 추첨식 복권은 구매 비용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 따라서 특히 로또복권이나 추첨식 복권의 경우에는 주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구매하게 되는 것이고 즉석식 복권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복권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복권유형에 따른 예측요인의 중요성 비교

앞에서 분석한 결과는 복권구매행동과 예측요인들 간의 개별적 관계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그 성격상 예측변인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 과제는 예측변인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밝히는 일일 것이다. 여기서는 기존복권구매행동(추첨식 복권, 즉석식 복권) 또는 로또복권구매행동을 규정하는 각 요인들의 중요성이 복권유형에 따라 다른지를 알아보기 위해 그 조절효과를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즉, 복권유형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생활만족도, 자극추구성향, 내적통제경향, 복권에 대한 감정적 태도, 복권에 관한 신념, 주관적 규범 및 행동통제의

표 3. 복권유형에 따른 복권구매행동 예측요인들에 대한 단계적 다중회귀분석

복권구매행동의 예측요인	추첨식 복권 구매행동	즉석식 복권 구매행동	로또복권 구매행동
생활만족도	-.24***		.10*
자극추구성향			.14**
내적통제경향			
감정적 태도		.25***	.31***
긍정적 기능에 대한 신념	.29***		.21***
부정적 기능에 대한 신념			
비합리적 신념			
복권 당첨은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된다.			.09*
솔직히 복권은 복 있는 사람에게 된다.		.18**	.10*
사람은 때로 복권 당첨을 미리 알 수 있는 꿈을 꾸는 경우가 있다.		.19**	
주관적 규범			
행동통제의 지각	.25***		
R^2	.204	.181	.386

* $p<.05$, ** $p<.01$, *** $p<.001$

지각을 예언변인으로 하고 즉석식 복권구매행동, 추천식 복권구매행동, 또는 로또복권구매행동을 준거변인으로 삼아 따로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최종 결과(표준화된 회귀계수와 설명변량)는 요약해서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볼 때, 복권유형에 따라 구매행동을 규정하는 요인에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추천식 복권구매행동의 경우 복권의 긍정적 기능에 대한 신념이 가장 중요한 촉진요인이었으며, $\beta=.29, p<.001$, 그 다음으로 행동통제의 지각이 중요한 촉진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beta=.25, p<.001$. 그리고 생활만족도는 중요한 억제요인이었으며, $\beta=-.24, p<.001$, 설명량은 약 20.4%이었다.

즉석식 복권구매행동의 경우 감정적 태도가 가장 중요한 촉진요인이었으며, $\beta=.25, p<.001$, 복권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 가운데서 복권은 복 있는 사람에게 된다는 신념과 사람은 때로 복권 당첨을 미리 알 수 있는 꿈을 꾸는 경우가 있다는 신념이 중요한 촉진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beta=.18, \beta=.19, p<.01$. 설명량은 약 18.1%이었다.

로또복권구매행동의 경우 감정적 태도가 가장 중요한 촉진요인이었다, $\beta=.31, p<.001$. 그 다음으로 복권의 긍정적 기능에 대한 신념과 자극추구성향이 중요한 촉진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beta=.21, p<.001, \beta=.14, p<.05$. 또한 복권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 가운데서 복권 당첨은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된다는 신념과 복권은 복 있는 사람에게 된다는 신념 및 생활만족도도 비교적 중요한 촉진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beta=.09, \beta=.10, \beta=.10, p<.05$, 설명량은 약 38.6%이었다.

논 의

본 연구는 복권구매행동에 대해 심리학적인 설명을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즉,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와 개인의 성격, 그리고 복권에 대한 태도라는 측면에서 복권구매행동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복권구매자는 비구매자에 비해 자극추구성향이 높고, 내적통제경향이 약하지만 생활만족도에는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복권구매자는 비구매자에 비해 복권에 대한 감정적 태도가 긍정적이며, 복권의 긍정적

기능에 대한 신념과 복권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이 강하고, 복권구매를 부정적으로 보는 내면화된 타자의 시각인 주관적 규범이 약하며, 복권구매행동에 대한 높은 통제력(주관적인 경제적 여유)을 가지고 있었으나 복권의 부정적 기능에 대한 신념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복권구매행동을 예측하는 이러한 요인들의 중요성은 구매복권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여기서는 복권유형별로 구매행동을 규정하는 요인에 대해 요약하고, 그 결과의 시사점과 제한점에 대하여 논의하겠다.

먼저 추천식 복권은 주로 생활만족도가 낮고, 복권의 긍정적 기능에 대한 신념이 강하며 용돈을 복권구입에 쓸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복권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즉석식 복권은 주로 복권에 대한 감정적 태도가 긍정적이며 복권은 복 있는 사람에게 된다는 신념과 사람은 때로 복권 당첨을 미리 알 수 있는 꿈을 꾸는 경우가 있다는 복권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복권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로또 복권은 주로 생활만족도가 높고, 자극추구성향도 높으면서 복권에 대한 감정적 태도가 긍정적이며 복권의 긍정적 기능에 대한 신념이 강하고 복권 당첨은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된다는 신념과 복권은 복 있는 사람에게 된다는 비합리적 신념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복권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에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 첫째, 생활만족도와 복권구매행동의 관계는 복권유형에 따라 다르다는 점이다. 추천식 복권은 자신의 생활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주로 구매하지만 로또복권은 반대로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권유형에 따라 복권구매행동의 동기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기존의 복권 중에서 추천식 복권은 최고 당첨금액이 높다는 특징이 있는데, 로또복권이 발매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추천식 복권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 불만을 느껴 그러한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복권에 희망을 걸어 습관적으로 추천식 복권을 구매해온 사람들인 데 반해, 새로운 로또복권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생활 속에서 재미로 하는 하나의 레저로서 로또복권을 소비하는 사람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로또복권은 기존의 복권을 구매하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서 새로운 소비자를 창출한 복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복권구매행동을 규정할 성격변인으로서 자극추구성향과 통제소재에 주목하였으나 성격의 기질적 측면인 자극추구성향이 복권구매행동과 밀접한 관계를 보인데 비해 성격의 인지적 측면인 통제소재는 복권구매행동에 대한 설명력이 상당히 낮았다. 즉, 복권구매행동은 개인의 행동과 행동의 결과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전반적 인지양식(행동의 결과는 개인 행동에 수반되고 따라서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지, 아니면 행동의 결과는 개인 행동에 수반되지 않으며, 따라서 통제할 수 없다고 믿는지)에 의해서 좌우된다기보다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새로운 경험을 통해 강한 자극을 얻고자 하는 기질적인 경향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복권에 대한 태도의 여러 요소들 가운데서는 복권에 대한 감정적 태도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권구매행동이 복권에 대한 태도의 인지적 요소나 규범적 요소보다 정서적 내지 평가적 요소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다. 물론 추첨식 복권구매행동의 경우는 다른 양상을 보였으나 (감정적 태도 대신 복권의 긍정적 기능에 대한 신념에 의해 규정됨) 복권구매집단 중에서 추첨식 복권 선호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위의 경향은 복권구매행동에 관한 일반적 경향이라고 해도 무난할 것이다. 구매자가 원하는 숫자를 임의로 선택 가능한 로또복권이나 즉석에서 당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즉석식 복권은 기존의 추첨식 복권에 비해 오락적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감정적 태도의 영향을 주로 받고, 기존의 추첨식 복권은 그러한 오락적 요소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감정적 태도 대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좀더 진지한 복권의 긍정적 기능에 대한 신념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여진다.

인지적인 요소 가운데 복권의 긍정적 기능에 대한 신념과 복권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은 상대적으로 중요한 변인이었으나, 복권의 부정적 기능에 대한 신념은 중요한 변인이 아니었다. 복권의 부정적 기능에 대한 신념

이 어떠한 종류의 복권의 경우에도 복권구매행동을 설명하는 데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은, 복권구매경험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비슷한 정도로(두 집단 모두 과반수의 사람들이) 복권은 사회에 사행심을 조장하고, 한탕주의를 만연하게 하고, 사람들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해친다고 하는 복권의 부정적 기능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러한 이야기는 남의 일이고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복권의 긍정적 기능에 대한 신념은 상대적으로 중요한 변인이었으나, 복권의 부정적 기능에 대한 신념은 중요한 변인이 아니었다는 결과는, 앞으로 로또복권의 부정적인 심리-사회적 기능에 대한 인식이 고조돼도 사람들의 로또복권 구매행동은 별로 영향을 안 받을 것이고, 반면 복권은 세금을 걷는 대신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든지 복권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든지 하는 로또복권의 긍정적인 사회적 기능에 대한 인식이 고조될 경우에는 상당히 로또복권구매행동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삶에 대한 평가와 성격, 그리고 복권에 대한 태도를 모두 복권구매행동을 규정하는 요인이라고 가정하여 그러한 방향의 인과적인 해석을 하였으나 그와 반대로 복권구매행동이 자기 지각에 영향을 미친 것일 수도 있다. 특히 복권에 대한 태도의 경우, 복권구매를 하고 나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복권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되거나 복권구매를 부정적으로 보는 내면화된 타자의 시각인 주관적 규범이 약해지는 것일 수도 있다. 또한 복권구매경험을 통해 복권의 긍정적 기능에 대한 신념이나 복권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이 강해지는 것일 수도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해서는 이러한 대안적인 해석을 배제할 수 없다.

본 연구는 조사 시기와 조사 대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한계점은 가지고 있다. 먼저 조사 시기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장래의 복권 시장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즉, 본 연구는 로또복권 발매개시 후 2개월이 경과된 시기에 행해졌다. 이 시기는 로또복권의 안정적인 정착이 이루어진 시기라고는 보기 어렵고, 앞으로 있을 로또복권 정착기에 선행

하는 도입기라고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미 정착기에 있다고 여겨지는 추첨식 복권이나 즉석식 복권의 경우와 복권시장의 성장단계라는 측면에 있어 차이가 있으며, 좀더 엄격한 비교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로또복권의 안정적인 정착이 이루어진 후에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조사 대상과 관련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대도시 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즉, 본 연구는 서울시와 전주시에 거주하는 일반성인만을 대상으로 행해졌으며 중소도시나 농어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중소도시나 농어촌의 사람들에게까지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상의 제한점에 유의하면서 누가 로또를 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자신의 생활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있으나, 다소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새로운 경험을 통해 자극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로또복권에 대한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와 큰 액수의 당첨금으로 실현되는 꿈과 희망을 품게 해준다는 로또복권의 긍정적 기능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하여, 복권은 사회에 사행심을 조장하고 한탕주의를 만연하게 한다는 부정적 기능에 대해 (경험을 통해) 오히려 잘 알면서도 (자신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 자기는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이기 때문에 로또에 당첨될지도 모른다는 비합리적인 기대감에 의해 행하게 되는 것이 로또복권구매행동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건설교통부 (2001). 복권현황 및 발전방향.
 김동직, 한성열 (1998). 개별성-관계성 척도의 제작과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2(1), 71-93.
 명지대학교 여가문화연구센터 (2003). 누가 복권을 하는가?: 복권 경험이 미치는 심리적 영향에 대한 연구.
 신행우 (1998). 성격과 음주동기가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윤정륜 (1982). 적응기제와 인지양식, 통제부위와의 상관. 교육학 연구, 20(2), 30-38.
 이홍표 (2003). 비합리적 도박신념, 도박동기 및 위험감수 성향과 병적 도박의 관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한국산업개발연구원 (2002). Lotto 발행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二宮浩彰 (1999). 「サッカーくじ」の購買行動と購買意圖の豫測要因. 武庫川女子大學紀要: 人文社會科學編, 47, 290-306.
 Ajzen, I. (1987). *Attitudes, traits, and actions: Dispositional prediction of behavior i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0, 1-63.
 Ajzen, I., Driver, & B. L. (1991). Prediction leisure participation from behavioral, normative, and control beliefs: An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Leisure Sciences*, 13, 185-204.
 Arnett, J. (1992). Reckless behavior in adolescences: A developmental perspective. *Developmental Review*, 12, 339-373.
 Arnett, J. (1994). Sensation seeking: A new conceptualization and a new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6, 289-296.
 Cloninger, C. R. (1987). A systematic method for clinical description and classification personality variant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4, 573-588.
 Cloninger, C. R., Przybek, T. R., Svrakic, D. M., & Wetzel, R. D. (1994). *The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TCI): A guide to its development and use*. St. Louis, MO: Center for Psychobiology of Personality.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A measure of global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Gatch, C. L., & Kendzierski, D. (1990). Predicting exercise intentions: The theory of planned

- behavior. *Research Quarterly for Exercise and Sport*, 61(1), 100-102.
- Godin, G. (1993). The theories of reasoned action and planned behavior : Overview of findings, emerging research problems and usefulness for exercise promotion. *Advancement of Applied Sport Psychology*, 141-157.
- Knowles, E. S., Cutter, H. S., Walsh, D. H., & Casey, N. A. (1973). Risk-taking as a personality trait.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1, 123-129.
- Lerner, M. J. (1980). *The belief in a just world : A fundamental delusion*. New York : Plenum Press.
- Rotter, J. B. (1966).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80(Whole No. 609), 1-28
- Walker, M. B. (1992). *The Psychology of Gambling*. Oxford, England : Pergamon Press.
- Zuckerman, M. (1997). *Sensation seeking : Beyond the Optimal Level of Arousal*. Hillside, NJ : Erlbaum.

부 록. 분석에 이용된 설문지 문항들

생활만족도

나는 내 생활에 만족한다.
나는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지금까지의 내 생활 방식을 바꾸지 않겠다.
내 생활은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수준과 대체로 비슷하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원했던 중요한 일들을 이루었다.
나의 생활 여건은 아주 좋다.

자극추구성향

나는 모험을 즐기는 편에 속한다.
나는 다소 기질이 거친 사람이 좋다.
무슨 일을 하든지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좋아한다.(R)
원만하면 위험한 일은 피하려 한다.(R)
위험한 일을 즐기거나 모험을 무릅쓰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한다.
이따금씩 자극적이고 짜릿한 게임이나 놀이를 즐긴다.
속도광과 차를 타느니 전철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낫다.(R)
오락이나 스포를 위해서 돈을 쓰기보다는 저축하는 것이 더 즐겁다.(R)
세세한 사항들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본능이나 추측 또는 직감에 따르는 경우가 많다.
정해진 규칙을 깨뜨리면 더 특별한 재미가 있다.
나는 가끔 취하고 싶다(예컨대, 술 등에).
나는 무엇이든지 한번쯤은 해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다.

내적통제경향

성공은 절대로 사람의 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달려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지 어떨지는, 운과는 거의 관계가 없다.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할 수 있을지 어떨지는 그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지 운과는 거의 관계가 없다.
나는 나의 행동을 결정할 때 운명에 맡기지 않는다.
운이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복권에 관한 감정적 태도

매력있는-매력없는, 밝은-어두운, 재미있는-지루한, 가치 있는-쓸모없는, 꿈이 있는-절망적인,
비합리적인-거림직한, 즐거운-비참한, 희망적인-비관적인, 건전한-불건전한

복권에 관한 신념

① 복권의 긍정적인 기능에 대한 신념
복권은 오락적 재미를 제공한다.
복권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
복권은 세금을 걷는 대신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

② 복권의 부정적인 기능에 대한 신념
복권은 사회에 사행심을 조장하고, 한탕주의를 만연하게 한다.
복권은 사람들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해친다.

③ 복권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
복권 당첨은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된다.
솔직히 복권은 복 있는 사람에게 된다.
사람은 때로 복권 당첨을 미리 알 수 있는 꿈을 꾸는 경우가 있다.

주관적 규범

내 가족들은 내가 복권을 구입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내 친구들은 내가 복권을 구입하는 것을 말릴 것이다.

행동통제의 지각

나는 용돈을 복권구입에 쓸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다.

복권구매빈도

최근 1년 동안 얼마나 자주 복권을 구입하십니까?

- ① 구입한 적이 없음, ① 지난 1년간 1번 정도, ② 6개월에 1번 정도, ③ 3개월에 1번 정도,
④ 2개월에 한번 정도, ⑤ 월 1회 정도, ⑥ 월 2~3회 정도, ⑦ 거의 매주, ⑧ 거의 매일

복권유형

최근에 가장 많이 구입하시는 복권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표시해 주십시오.

- ① 추첨식 복권, ② 즉석식 복권, ③ 로또(LOTTO) 복권

(R) 역채점문항

Who Plays Lotto? : Prediction Purchase Behavior of Lottery Tickets from Quality of Life, Personality and Attitude Towards the Lottery

Chung-Woon Kim and Yoshiyuki Inumiya

The Research Center for Leisure and Culture, Myongj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redictors of the purchase behavior of lottery tickets. The subjects were 575 adults. The results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 First, the effects of individual's life satisfaction, sensation-seeking, locus of control and attitude towards the lottery(affective attitude, beliefs, subjective norm,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on the purchase behavior of lottery tickets were confirmed. Second, in regard to the determinants of the purchase behavior of traditional lottery tickets, low life satisfaction, belief in positive function of lottery industry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were found to have facilitatory influence on the purchase behavior. Third, on the determinants of the purchase behavior of instant lottery tickets, positive affective attitude and irrational beliefs were found to have facilitatory influence on the purchase behavior. Fourth, in regard to the determinants of the purchase behavior of Lotto, life satisfaction, sensation-seeking, positive affective attitude, belief in positive function of lottery industry and irrational beliefs were found to have facilitatory influence on the purchase behavior. Finally, we discussed some implications for the lottery market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Key words : attitude towards the lottery, life satisfaction, locus of control, sensation-seeking, Lotto, purchase behavior of lottery tickets